



2017년 8월 20일(제837호) 연중 제2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이, 여인이! 네 믿음이 침으로 크구나.”

오늘 복음에서 딸의 구마를 청한 여인은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은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복음에서 여인이 가나안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도 자신을 강아지에 비유함에도 굴하지 않고, 치유를 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주님의 식탁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양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자 우리와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인 그녀에게도 빵의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배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믿는 법을 배우며,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빵을 우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현우(기브리엘) 신부
태릉(28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6,1.6-7
회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 시 로마 11,13-15.29-3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마태 15,21-28
영 성 제 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진례를 살다

감사기도(I)

유럽의 고딕양식 성당이나 바로크양식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많은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중 중앙에 있는 제단은 다른 제단들보다 크고 장식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중앙 제단”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하느님께 감사하거나 무엇을 청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기도보다도 그 의미가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예배인 미사성제 한가운데서 바쳐지는데 그것을 ‘감사기도’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를 ‘성찬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사자들 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즉 최후 만찬 때 당신 제자들과 함께 바치신 감사기도를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기도의 형식과 표현은 단 한번 영구불변하게 고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변화 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감사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초세기나 10세기와는 다른 언어로 감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새로이 감사기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감사기도가 많이 있고 또 다른 교회의 미사 기도에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에 종국적으로 관련되는 실체성, 인간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 어디서나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기도를 좀 자세히 살피고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기도는 감사송 전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말로써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마침 영광송 다음에 공동체가 “아멘!” 하고 대답함으로써 끝납니다. 우선 신자들이 알아야

예물준비

할 것은 감사기도는 집전자가 바치는 직무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주교나 사제가 직무상 바치는 기도입니다. 미사 전례가 사제의 임무라고 해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물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성체성사 제정의 말씀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청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제는 미사 중에 감사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신학자들의 말과 같이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를 행합니다. 또 미사경본 총지침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이 기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회중을 이끄는 사제가 거룩한 백성 전체와 모든 참석자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다.”(미사경본 총지침 30항) 그러므로 사제는 직무상의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기도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온 교회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사제는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청하나이다.” 그래서 사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감사기도를 바칩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흔들리는 마음

이리저리
요동치며
흔들리는
내 마음
잡아 줄 곳
어디인가.

흔들흔들
요동치는
날에.

상화이야기

최후의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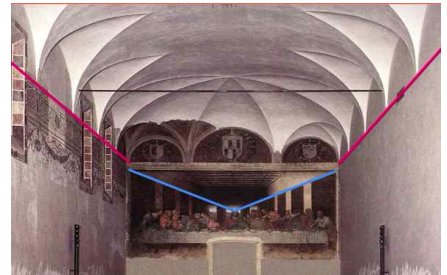


지오바니 피에트로 리졸리(활동시기: 1508-1549)
1520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89.5 X 120 cm
신타 마리아 델레 그리치에 성당,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작품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다시 3명씩 나뉜 제자들의 그룹이 보이는데, 예수님 바로 옆 제자는 의심 많은 제자인 토마스 성인으로, 마치 지금도 손을 뻗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는 듯 보이는데, 이 손가락이 후에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보는 손가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머리 부분은 이 그림의 원근법의 선이 합쳐지는 부분인데, 이 그림이 위치한 식당 전체에서 보자면, 보는 사람보다 위에 위치하여, 우리 기준에서의 원근법이 아니라, 더욱 높은 위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2-3미터 정도 부양했을 때에만 가능한 시점인데, 이는 관람자들의 편의를 위한 그림은 아니라는 뜻이다. 수도사들이 침묵 속에서 최후의 만찬을 묵상하면서, 정신적 고양을 권장하는 의미일지, 많은 생각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기존의 최후의 만찬 그림과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감정묘사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불안, 의심, 분노, 실망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자신들의 생각에 빠진 제자들과 달리,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이 이 그림에 일종의 평안을 가져온다.



김은혜(블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0주일: 회상대 초대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8월 20일(주일) 11:00
- 레바논 동명부대 방문
 때: 8월 21일(월) -26일(토)

◆ 국장회의

 때·곳: 8월 22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신자 진수 조사 관련 교구 안내

기간: 8월 1일(화)-31일(목) ※ 부대공문 필독
방법: 국방인사정보체계 입력
신자기준: 영세자, 예비자, 천주교 관심자
 (실제 종교 활동 여부와 불일치 가능)
홍보: 지휘관들에게 전수조사 홍보
주의사항: 아이디는 군번, 비번은 주민등록번호
 이므로 조작되는 일 없도록 주의.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